

생물학의 발전이 인문학에게 주는 위기와 기회*

조 현 수

(서울대학교 철학과)

1. 자연과학의 발달은 - 특히 생물학의 발달은 -, 왜 인문학에게 위기로 느껴지는가?

아마도 인문학이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문학이, 인류의 사상이 전개되어 온 오랜 기간동안, 자연 세계의 다른 대상들을 탐구하는 학문들로부터 - 이를테면, 물질의 본성과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화학이라든가 생명체 일반의 원리를 탐구하는 생물학으로부터 - 뚜렷이 구분되는 독자적인 학문

* 좋은 지적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적해주신 부족함을 늘 마음에 두고 앞으로 더욱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주 제 어: 생물학, 인문학, 자연의 객관성, 객관적 지식, 현대 학문의 <지식의 논리>, 인문학의 고유성
biologie, science humaine, objectivité de la Nature, connaissance objective, épistémologie de la science moderne, Singularité de la science humaine.

으로 존립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들 단순한 물질이나 심지어는 생명체 일반과도 다른, 그만의 독특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어떤 선입견에도 물들지 않은 신선한 눈을 가진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 예컨대 지구에 처음 온 지성적인 외계인 탐사자라면 - 다음과 같은 구분법을 인상 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바위는 늘 한 자리에서 변함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으며 구름은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떠다닐 뿐이다. 이들은 스스로의 자발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며, 먹고 마시거나 기쁜 일에 즐거워하고 슬픈 일에 애달파하는 등의 ‘살아 있음’의 징표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들 단순한 물질로부터 생명체를 구분 짓게 하는 이유이다. 생명체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의 자발적인 힘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특히 동물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움직임과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에서 이러한 생명체의 특성은 더욱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대다수의 생명체들에게서 이러한 능동적인 활동능력은 오로지 고정된 본능이 정하는 데 따라 작동하는 듯, 정형(定刑)적인 행동방식의 동일한 반복만이 발견될 뿐이다. 오직 인간에게서만이 본능에 의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주어진 조건을 여러 가지 다양하고 가변적인 variable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변형시켜 나가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의 모습이 발견되며, 이는 인간에게는 다른 생명체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의식적이고 반성적인 사고의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바로 이 의식적 사고의 능력으로 인해 인간은 자연과 본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으며, 이로부터 인간은 영원히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자연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것의 창조를 통해 부단히 변화되어 나가는 <(인문적) 문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여전히 자연의 일부로만 살아가는 다른 생명체들과는 공유되지 않는, 그만의 독특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유한 존립 의의를 가진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에 대한 저 오래된 믿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또한 지극히 온당해 보이는 바로 이러한 구분법에 기초해 온 것일 게다.

하지만 역사 속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위대한 인문학자들의 경우, 그들 중의 많은 이들이 이처럼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의 지위에 결코 만족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그들은 결코 인문학을 단 순히 자연학으로부터 구별되고 대립되는 것으로, 다른 존재자들은 제쳐두고 오로지 인간의 본성만을 배타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학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전체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제 아무리 독특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전체가 가진 궁극적인 운명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거대한 파도 속을 떠다니는 한 알의 작은 포말이 이 파도 전체의 운동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 누가 이 작은 한 부분이 제 아무리 독특한 성질을 가졌다 한들 그것이 결국 저 전체의 보편적인 운명 속에 흡수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본성이 제 아무리 독특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의식적 사고 능력이 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도덕 법칙의 명령이 제 아무리 저 밤하늘의 별들만큼이나 고귀한 가치로 빛난다 할지라도, 인간이란 존재는 이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서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의 이성적 사고 능력과 도덕적 실천 의지, 예술적·문화적 창조력, 이것들이 그 어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해낸다 하더라도, 우주 전체의 보편적인 운명이 그 의미를 알아주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의미로 전락할 뿐이다. 인간이 (물질이나 여타의 생명체들과 같은) 우주의 일반적인 존재자들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다시 말해 인문학이 자연학의 일반적인 원리에로 환원되지 않는 독립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거꾸로 우주 전체의 본성도 인간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즉 우주 전체는 결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

의 의미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에, 우주 전체의 보편적인 운명은 인간의 삶이 만들어내는 의미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저 제 갈 길을 갈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다른 존재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인간의 본성만을 탐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주 전체의 보편적 운명 속에서 인간의 삶이 가질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을 포기한다는 것을, 혹은 인간의 삶이란 제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어차피 우주 전체의 보편적인 진로를 결정짓고 개선하는 데에는 전혀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문학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우주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결국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변방의 소음에 불과하다 것을 자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한 부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오직 전체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만, 그 부분이 이 전체에 대해서 갖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만, 비로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이 우주의 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인문학이 제대로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은 그러므로 자신 안에 자연학을, 즉 우주 전체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인문학이 제대로 자기 자신일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타자(자연학)가 되는 것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우주 전체의 보편적 원리에 대한 인식 없이, 즉 자연학적 주장이 없이, 그저 인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문학,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런 자기기만의 인문학이 사상의 역사를 통해 오랜 생명력을 유지한 적은 결코 없었다. 이런 식의 인문학이 결국은 자신의 원래 대상- 인간-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은 정신이 깨어 있는 많은 이들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전체에 있고, 부분만을 아는 것은 실은 그 부분마저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자연 세계 일반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의 노력만이 (자연 세계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가 가진 가능성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해줄 것

이며,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처럼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한 인문학적 이론만이 많은 이들의 내면 깊은 공감을 얻어 오랜 생명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사상사의 그 어느 시기에서건, 인간은 자신의 존재 기반이 되는 자연 세계의 보편적인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그 속에서 이뤄지는 인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이르려는 노력을 한시도 잊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신화와 종교, 철학과 같은 인문학적 담론들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온 역사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인문학적 담론들이 긴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 자연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종교적·철학적 세계관의 많은 것이 부정 당하는 -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대중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우주 전체의 거대한 질서 속에서 인간이 수행하는 역할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이런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해서 우주의 보편적인 질서가 전개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성공해 왔기 때문이다.²⁾ 이들 담론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들 담론들은 공히, 그들 사이의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에서 발견될 수 있는 원리가 우주 전체의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원리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 담론들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동일한 원리와 방식에 의해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 세계 전체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인간, 이 인간은 이제 자신 앞의 자연 세계 전체에 대해 더 이상 인간 자신의 삶에 무관

2) 곧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전통적인 종교적·철학적 세계관을 두고 '...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전통적 세계관을 지금도 여전히 옳은 것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전통적 세계관의 이야기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사실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심한 절대적인 타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삶의 실천을 통해 더욱 더 크게 성장해 나갈 또 하나의 자기 자신- 더 커다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이리하여 곧 우주 전체가 자신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 된다. 자연 세계의 다른 일반적인 존재자들로부터 인간을 구별지우는 그의 저 독특성, 이것은 우주의 본성이 그만큼 다른 존재자들에게서와 달리 인간에게서 보다 더 풍요롭고 강렬한 방식으로 자신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곧 우주의 주인이고 목적이다 : 우주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풍요로운 모습으로 실현되며, 따라서 인간은 그의 행위 하나 하나를 통해 우주의 보편적인 운명을 스스로의 손에 의해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가능성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인문학적 담론들이 가진 힘, 그것은 이처럼 인간의 삶에 우주적 의미를 찾아줌으로써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위로해 줄 수 있었다는 데서 나오는 것일 것이다. 전통적인 인문학적 담론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강렬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에게 우주와의 근원적인 일체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유한한 삶을 넘어 우주 전체의 유구한 흐름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그의 앞과 뒤, 또한 그의 옆에서 그와 더불어 하나 되어 질주하는 인류 전체의 거대한 흐름을 통해 모든 저항과 장애를 분쇄하고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죽음까지도.”³⁾

자연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objective\ knowledge$ ’을 추구할 것을 천명하는 자연 과학의 발달이 이러한 전통적 인문학적 담론들에게 왜 위협이 되는지는 우리가 보기에 이제 분명하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전통적 인문학적 담론이 인간에게 주었던 저 위안을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저 위안을 가져다주었던 우주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인문학의 담론이 객관적인 지식이 아님을, 혹은 객관적인 지식에 기초해 있는 것이 아님을 자연 과학이 주장하기 때문이다. 대체 자연 과학이 말하는 ‘객관적 지식’

3) Bergson, *L'Évolution créatrice* in *Œuvres*, p. 725, 1959

이란 무엇이기예, 전통적인 인문학의 저와 같은 담론들은 객관적 지식의 지위를 거부당해야 하는가?

현대의 자연 과학은 그것과 유사한 예전의 탐구활동- 즉 예전의 자연 과학 -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주장은 아마도 옳을 것이다. 현대의 자연 과학은 이러한 근본적인 구별의 이유가 자신이야말로 예전의 자연과학과는 달리 ‘진정한 객관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데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현대의 자연 과학이 자신만이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진정한 객관적 지식’, 이 ‘진정한 객관적 지식’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탄생한 것은 17세기 서구 근대 과학 혁명기라고 말하는 것도 아마 옳을 것이다. 우리는 17세기 이전의 서구 사상사에서나 혹은 서구 근대 과학 혁명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비서구 문명권의 사상사에서는 자신들의 이론을 사실과의 대조를 통해 실제로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머리 속에서 꾸며낸 주관적 사변의 산물이 아니라 사실에 의한 확인 작업을 거쳐서 얻은 지식, 이런 의미에서의 객관적 지식이라면 어느 문명권의 어느 시기에서나 항상 늘 착실하게 수집되고 축적되어 온 것이며, 17세기 서구의 과학 혁명도 이러한 객관적 지식의 축적을 기반으로 해서 비로소 가능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인간에게 위안을 주던 저 전통적 인문학적 담론들도 실은, 많거나 적거나, 혹은 명백한 방식으로나 함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논리 안에 이런 객관적 지식들을 포섭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위안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자연 과학은 무엇이 진정으로 ‘객관적 지식’이냐는 데 대해서 예전의 자연과학과는 분명히 근본적으로 다른 논리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새로운 ‘객관적 지식의 논리(epistemology of objective knowledge)’를 - 혹은 ‘객관적 지식의 방법론’을 -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분명히 17세기 서구 근대 과학 혁명의 사상가들이다.

현대의 자연 과학이 이해하는 ‘객관적 지식’이란 무엇인가? 혹은, 방금 위에서 우리가 말한 바 같이, 현대의 자연 과학을 예전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구별지우는 새로운 ‘객관적 지식의 논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갈릴레오와

데카르트에 의해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주어진 원칙에 따르는 지식이다. 이들에 따르면, 자연 세계란 본질적으로 ‘관성(타성)의 원리(principle of inertia)’에 의해 지배 받는다 : 자연의 모든 것은 그저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만 움직일 뿐, 자기 스스로의 발의initiative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즉 자연은 단지 객관적일objective 뿐, 어떤 목적을 스스로 지향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not projective. 따라서, 이런 <자연의 객관성objectivity of Nature>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즉 객관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 현상들을 어떤 목적인(目的因 : final cause)의 설정을 통해 설명해서는 안 된다. 목적인이란 자연 자체 속에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즉 자연이란 결코 의식적으로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지향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자연에게 이러한 목적인을 부여하는 것은 단지 인간이 자신의 주관적인 목적지향적인 활동을 자연 세계에 그대로 투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즉 자연에 대한 목적인적인 설명은 단지 인간의 주관적인 - 즉 의인적인anthropomorphic - 해석일 뿐이며, <자연의 객관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지식, 즉 객관적인 지식이 되지 못한다. 데카르트와 갈릴레오는 이런 <자연의 객관성>의 원칙을 세움으로써 오래 동안 서구 사상계를 지배해 오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과 우주론을 뒤엎는 새로운 역학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거대한 우주적 목적의 실현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공존하던 목적론적 질서는 사라지고, 맹목적이고 타성적인 물체들 사이의 기계적인mechanistic 상호작용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연의 객관성>이라는 이 원칙은 단순히 새로운 역학만을 창시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대의 학문을 위한 지식의 논리epistemology of modern science가 되는 것이다. 즉 어떤 지식이 진정으로 객관적인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즉 어떤 이론이 진정으로 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전해주는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의 객관성>이란 이 원칙, 즉 목적인을 배제하는 이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⁴⁾ 자연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

4) “La formulation, par Galilée et Descartes, du principe d’inertie, ne fondait pas seulement la

있어서 이 원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기계론적인 원리에 입각한 설명 이외의 다른 종류의 원리에 입각한 설명을 끌어들이는 것은, 진정한 *객관적인* 지식을 줄 수 없으며, 따라서 진정한 *학문*의 지위에 오를 수 없다.

<자연의 객관성>이라는 원칙 위에서 성립하는 현대 자연 과학의 객관적 지식은 그러므로 저 전통적인 인문학적 담론들이 주던 위안을 근본적으로 송두리 채 부정하는 것이다. 저 전통적 인문학적 담론들이 인간에게 우주 전체와의 근원적인 일체감을 주고 그의 삶에 우주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삶이 자연 전체의 거대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참가한다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식과 목적을 빼앗겨버린 자연은 이제 인간의 삶에 무관심할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 아무런 것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우주의 거대한 침묵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⁵⁾ <자연의 객관성>이란 원칙, 17세기 서구의 근대 과학 혁명기에 처음으로 명확하게 제시된 이 원칙은 그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현대 학문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 현대 자연 과학의 놀라운 발전은 이 원칙의 더욱 철저하고 광범위한 적용에 의해 이뤄진 것에 다름 아니다. 현대 자연 과학의 발달은 더욱 더 깊은 차원과 더욱 더 광범위한 영역의 많은 현상들이 이 원칙의 요구에 맞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럴수록 이 원칙은 더욱 더 확고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그럴수록 더욱 더 저 전통적인 인문학적 담론들의 세계관은 점점 더 근원적인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그것이 인간에게 주던 위안의 힘도 점차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다. 자연 과학의 발달이 전통적 인문학적 담론들에게 위기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가 전통적 인문학적 담론들에 대해 ‘위대하다’고 말한 것은, 무엇보다

mécanique, mais l'épistémologie de la science moderne... Le postulat d'objectivité est consubstantiel à la science, Il a guidé tout son prodigieux développement depuis trois siècles.”

- Jacques Monod, *Le hasard et la nécessité*, Éditions du Seuil, Paris, 1970, pp. 37-87

5) 파스칼, 『팡세』 “Le silence éternel de cet espace infini m'effraye.”

다도 그것의 근본성 때문이다 : 이 전통적 인문학적 담론들은 자신의 본래적인 목적인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단순히 우주의 이 작은 부분-인간-에게만 자신의 시선을 국한시키는 우(愚)를 범하지 않았다 ; 그것은, 부분의 근본은 전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주 전체의 보편적인 구조에 비추어서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았던 근본적인 사색이었던 것이다. 또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인간을 위대하게 높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 인간은 우주 전체와 근본적으로 하나를 이루어 이 우주 전체의 보편적인 운명을 스스로의 손으로 개척해 나가는 위대한 존재이다. <자연의 객관성>의 원칙에 의거하는 자연 과학의 눈부신 발달은 전통적 인문학적 담론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위대함을 - 또한 인간의 위대함을 - 여지없이 붕괴시키는 것이며, 이런 붕괴와 함께 인간에게 우주 속의 고독을 안겨 주는 것이다. 어느 누가 자연 과학이 안겨다 주는 이런 인간 자신의 비운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자연의 객관성>이라는 원칙이 처음 천명되고 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자연 과학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인문학적 담론은 자신의 죽음을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았으며, 자연 과학의 발달이 끊어 놓은 인간과 우주 사이의 저 본래적인 유대 관계solidarity를 회복시킴으로써 위대했던 자신의 과거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인간의 손에 의해 이뤄지는 인간 역사의 변증법적 과정이 곧 우주 전체의 자기 전개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헤겔과 맑스의 필사적인 노력을, 또한 이러한 변증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수용을, 어떻게 달리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변증법적 논리>와 <자연의 객관성>은 결코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 헤겔과 맑스(혹은 엥겔스)는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전자를 수호하고 후자를 부정하기 위해 ‘자연의 변증법적인 전개과정’에 대해 얘기하게 된 것이다 : 헤겔과 맑스는 정말로 현대 학문과는 다른 새로운 학문을 - 혹은 새로운 지식의 논리를 - 창조해낸 것이다. 하지만 <자연의 객관성>에 물든 현대 자연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창조해낸 새로운 학문, 즉 <자연의 변증법>은 학문이라기보다는 소설에 불과한 것으로,

장엄하기는 하지만 결국 판타지에 불과한 공허한 궤변(혹은 횡설수설)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약간의 동정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어느 허풍선이의 과장된 기담(奇談)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서구 근대의 자연 과학 혁명의 초창기어나 또한 그 이후 자연 과학이 한참 발달한 19세기 초엽까지에도, <자연의 객관성>이라는 원칙은, 물질 세계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거둔 커다란 성공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해서는 그리 성공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0년이 가까운 이 긴 시간동안, 이 원칙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해명할 수 있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더 인간을 알 수 없는 존재로 - 즉 *객관적* 지식으로 포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존재로 - 만들었던 것이다. 이 원칙은 자연 과학에게,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정하는 데 따라 필연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 인간도 (또한 생명체도) 자연의 일부인 한, 그의 행동도 자연 세계의 모든 것에 관철되는 이 자연 법칙의 명령에 따라 기계적이고 필연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과 생명체는, 물질처럼 자연 법칙의 규정에 따라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 법칙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 즉 자연 법칙에 의해 규정되지 *determine* 않는 방식으로, 혹은 더 나아가 때론 이 자연 법칙을 자신을 위해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 자기 스스로의 의식과 의지를 갖고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인간은, 어떤 종류의 목적인도 배격하는 <자연의 객관성>의 원칙이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의식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목적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의 객관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연 과학의 발전이 점점 더 많은 현상들을 더욱 더 정확하게 설명하게 되면 될 수록, 이러한 원칙에 반대되는 존재방식을 보이는 인간(생명체)의 존재는 그만큼 점점 더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어 간 것이다.

<자연의 객관성>의 원칙이, 자연 과학의 지속적인 눈부신 발달이 실증

해 보이듯이, 자연 세계의 모든 것에 관찰되는 보편적인 것이라면, 인간은 (또한 생명체는) 어찌하여 이런 특이성- 이 원칙에 의해 설명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듯이 보이는 특이성-을 보이는 것일까? 혹시 저 원칙은 자연의 모든 현상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적 현상에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것이 아닐까? 생명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 원칙과는 다른 또 하나의 원칙이 자연 세계에 실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다른 또 하나의 원칙, 19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저 200년 남짓한 기간 동안,⁶⁾ 혹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인간은 자기 자신과 생명체의 미스테리를 해명하기 위해 이 또 하나의 원칙에 호소해 왔다 : 그것이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실체 *res cogitans*’이고 엘자서 *Elsässer*의 ‘생명의 원리 *principe vital*’이며, 베르그손의 ‘생의 약동 *élan vital*’이고 테야르 드 샤르댕의 ‘에너지의 정신적 벡터 *vecteur spirituel de l'énergie*’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과 생명체의 현상에 대해서 이런 또 하나의 원칙을 끌어들이 설명한다는 것은, <현대 학문의 학문성을 규정하는 지식의 논리 *epistemology of modern science*>의 입장에서 볼 때 - 즉 무엇이 진정한 객관적 지식을 줄 수 있는 학문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지식의 논리 *epistemology*>의 입장에서 볼 때 -, 참된 객관적 지식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진정한 학문적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 즉 현대 학문의 논리는 이 또 하나의 원칙에 의한 설명을 사태를 참되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대 학문에 있어서 객관적 지식이란 저 <자연의 객관성>의 원칙에 따르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 <현대 학문의 지식의 논리 *epistemology of modern science*>에 따르면, 이 원칙에 따르지 않는 모든 주장은 진정한 학문이 아니라 그저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자연의 객관성>이라는 원칙 이외의 또 다른 원칙에 의거하는 것, 그것은 참된 객관적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대 학문의 규정에 모

6) 잠시 뒤 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윈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순된다. 이 또 하나의 원칙을 상정하는 것과 객관적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대 학문의 논리는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현대 학문의 지식의 논리epistemology of modern science>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또 하나의 원칙에 의거한 설명은 학문이 아니거나 - 따라서 참된 객관적 지식을 주지 못하는 허구이거나 -, 아니면 학문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자신의 논리가 틀린 것이거나, 이 둘 중 하나이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인간과 생명체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또 하나의 원칙을 정말로 자연 세계에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17세기 근대 자연 과학의 혁명 이후 그토록 커다란 성공을 거둬온 자연 과학의 발전을 뒷받침해 온 <자연의 객관성>의 원칙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부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객관적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대 학문의 규정도 - 즉 현대 학문의 <학문성>도 - 또한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연의 객관성>이란 원칙은, 일단 한 번 세워지고 난 뒤에 보자면, 지극히 간단하고 명료한 원칙이다 ; 누가 이렇게 간단한 걸 모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고도로 발달된 지식체계와 문명을 건설한 비서구 문화권의 어느 누구도, 또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17세기 이전 서구의 위대한 사상가들 중의 어느 누구도, 이러한 간단한 원칙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데에는 물론, 위에서 지적한 대로, 정서적인affective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전통적인 인문학 담론이 주던 저 감미로운 위안을 인류는 도저히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⁷⁾ :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Ego나 Super-Ego가 아니라 Id라고 정신분석학은 말하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에는 이런 정서

7) 다음과 같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가장 위대한 인문학자 중의 한 사람일) 괴테다 : “자연은 가장 단순하고 동시에 끝없는 신비의 근원이며 향연 그 자체이다. 자연의 신비한 창조 행위를 수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 관찰·탐구하여 파악하는 권리에 대한 나 자신의 소질과 성정(性情)을 나는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행사해왔다.” - 이 구절을 우리는 다음의 책으로부터 인용해 왔다 : 『사상사 속의 과학』, 히로시게 토오루 등 지음/ 남도현 옮김, p. 160, 다우, 2003.

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론적 이유도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게 된다. 인간과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목적지향적* 존재방식은 저 원칙의 보편적인 정립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충분히 근거 있는 이유였던 것이다.

생물학은 생명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생물학이 물리학이나 화학과는 다른,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서구 근대 과학 혁명 이후에 조성된 이런 지적 상황 때문이다 : 즉 생명체의 목적지향적 존재방식은 물질의 존재방식과 뚜렷이 대비되는 듯이 보였기 때문에, 물질을 다루는 물리학이나 화학과는 대비되는 생물학의 성립이 필요했던 것이다. 생명체들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친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통도를 그려본 결과, 생명체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에 현존하는 생명체들의 종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 구조와 기능의 발달된 모습은 (화석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전의 생명체들의 단순성과 대비되어, 생명체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그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진화의 사실은, 즉 생명체가 점점 더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갖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다는 사실은, 물질과 대비되는 생명체의 목적지향적 존재방식을 - 즉 생명체는 물질과 달리 더 나은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 더욱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화의 사실 그 자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예전부터의 믿음을 결코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을 이러한 생명체들의 진화의 정점(頂點)으로서, 오랜 세월에 걸친 목적지향적 진화 여정의 최종적인 목적으로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에 의한 진화’라는 다윈의 생각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러한 예전부터의 믿음을 얼마나 깊게 상처 내는 것인가를 알고 있다 :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일견(apparently) 목적지향적 방식

으로 이뤄지는 듯이 보이는 생명체의 진화가, 어떻게 ‘생명의 원칙vital principle’과 같은 또 하나의 원칙을 빌지 않고서 물리-화학적 힘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순전히 기계론적인mechanistic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론이다. ‘자연 선택설’은 인간의 존재도 결국 다른 모든 것들과 다를 바 없이, 오로지 물리-화학적 힘들의 산물이라는 것을, 즉 단지 기계론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맹목적인* 힘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윈의 이론에 가해지는 이러한 혹평과 비난은 - ‘이 이론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비난은 - 실은 그 이론에 부여되는 영광과 찬사와 다른 것이 아니다 :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생명체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여태까지 제시된 여러 이론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의 객관성>이라는 원칙에 - ‘참된 객관적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대 학문의 규정에 - 부합하는 이론이다 ; 생물학은 - 혹은 적어도 생물학의 영역 중 생명체의 진화를 설명하는 부분은 -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의해 비로소, 혹은 본격적으로, 진정한 학문 - ‘현대 학문’이라는 의미에서의 학문 -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⁸⁾

생명체의 진화에 대한 다윈주의darwinism의 견해는,⁹⁾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에서 생기는 변화들 중 다음 세대로 전승될 수 있는 변화는¹⁰⁾ 오직 그 생명체의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변화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¹¹⁾ 생명체가 가진 거시적인macroscopic 구조와 기능은, 그 생명

8) “Jusqu’à présent la théorie sélective est la seule à avoir été proposé qui, ... soit compatible avec le postulat d’objectivité.” - Jacques Monod, *Ibid*, p. 42.

가령, 다윈의 ‘자연 선택설’과 한 동안 경쟁 관계에 있었던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생각해보라 : 이 이론은 생명체의 진화는 ‘비물리적인 정신적인 요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긴장(목적지향:tension)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즉 <자연의 객관성>을 벗어나는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9) 우리는 여기서 다윈 자신의 이론 뿐만 아니라, 그의 이후에 크게 발달한 생화학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이론을 계승하고 한층 더 발전시킨 ‘신-다윈주의자들 neo-darwinism’의 이론도 함께 포함하여 생각한다. 오늘날 생물학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신-다윈주의’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10) 다음 세대로 전승될 수 있는 변화만이 진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체의 유전자라는 미시적인microscopic 차원이 담고 있는 정보에 의해 그렇게 형성되도록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생명체의 유전자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변화는¹²⁾ 거시적인 차원에 속하는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면 그 반대 방향으로의 영향관계는 불가능하다 : 즉 생명체의 거시적인 구조와 기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미시적인 유전자에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 이것이 바로 생명체의 거시적인 구조와 기능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목적지향적인 의도적인 노력이 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사코 부정하게 만드는 근거이다. 생명체의 진화는, 이처럼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난 변화를 반영하는 생명체의 거시적인 구조와 기능이 그 생명체의 생존survival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일어나는 것이다 : 즉 생명체의 생존에 유리한 변화를 가져오는 유전자의 변화는 (자연적으로) 선택되어 다음 세대에로 보존될 수 있지만, 반면 그렇지 못한 유전자의 변화는 선택되지 못하고 생존하지 못하도록 도태되는 것이다.¹³⁾ 생명체가 다양하고 가변적인 생존조건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와 기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 온 것은, 어떤 목적지향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맹목적인 자연선택의 힘에 의해서 인 것이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또한 그것이 제시하는 ‘생명 현상에 대한 순전히 기계론적인 설명의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그 정당성을 입증받아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참된 *객관적* 지식을 주는 현대 *학문*으로서의 생물학의 발전은, 물질에는 없고 오직 생명체들에게만 있는 특징들이 - 따

11) 물론 이러한 주장은 다윈 자신은 알지 못했던, 그의 이후에 발달한 생화학적 지식에 근거한 주장이다. 하지만 신-다윈주의자들은 다윈에게서의 이와 같은 생화학적 지식의 부재가 결코 그의 천재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한다.

12) 생명체가 자신의 거시적인 구조와 기능을 *의도적으로(목적지향적으로)* 활용하여 일으킬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변화’이다.

13) 이에 관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technical 자세한 설명을 여기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서 예전에는 <자연의 객관성>이라는 원칙을 벗어나는 듯이 보였던, 그래서 또 *하나*의 원칙에 호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던 특징들이 - 어떻게 해서 <자연의 객관성>의 원칙에 맞게 물리-화학적인 힘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순전히 기계론적인 언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¹⁴⁾ 가령, 생명체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불가사의한 특징 중의 하나인 유전 현상 - 생명체의 불변적인 자기복제reproduction 현상 -, 이 현상을 규명하는 데 놀라운 기여를 한 ‘분자 생물학’의 의의를 평가하면서 사람들은 ‘유전에 대한 *물리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게 되었다¹⁵⁾ : 생명 현상에 대해서도, 물질 현상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물리학*이 가능하며, 더구나 목적인을 배격하는 이런 설명이 최고의 올바른 설명이 되는 것이다 ; 이것은 생명체가 물질과 똑같은 원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생명체가 물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또 *하나*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런 ‘생명 현상에 대한 *물리학*’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물학의 거듭된 발전, 그것은 <자연의 객관성>과는 다른, 또 *하나*의 원칙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더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생물학의 거듭된 발전은, 현대 학문에서 객관적 지식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지식의 논리epistemology of modern science’가, <자연의 객관성>만을 유일한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자신의 논리를 생명의 영역 가장 비밀스러운 데까지 일관되게 *정합적*으로coherently 밀고 나갈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생물학의 승리는 기계주의의 승리다 : 생명체는, 자크 모노의 말을 빌자면, 화학적 기계machine chimique인 것이다. 하지만, 생물학의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현대 학문을 떠받치는 ‘지식의 논리epistemology of modern science’가 자신의 정합성coherence을 점점 더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크고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가면 갈수록, 우주에 있어서의 인간의 지위

14)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Jacques Monod의 책을 참고해주시 바란다. 또 다음의 책도 추천할 만 하다 : 『이것이 생물학이다』, 에른스트 마이어 지음/ 최재천 외 옮김, 몸과 마음, 2002.

15) “une théorie *physique* de l’hérédité” - Jacques Monod, *Ibid*, p. 11.

는 점점 더 낮아져 물질이나 다른 생명체들과 똑같아지게 된다 :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어떤 숭고하고 필연적인 존재이유raison d'être가 아니라, 물질이나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우연'과 '자연 선택'이라는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작용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지위가 이처럼 계속 낮아질수록, 인간이 물질이나 다른 생명체들과 무언가 다른 존재여야지만 (물리학이나 생물학과는 다른) 자신의 고유한 존재의의를 가지게 될 - 그리하여 <자연의 객관성>의 원칙에 의존하는 이들 자연 과학의 논리의 정합성을 깨부수고, 그것과 자웅을 겨룰 수 있을만한 독립적인 학문으로 행세할 수 있게 될 - 인문학 역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특히 (현대 학문으로서의) 생물학의 발전이 인문학에게 위기가 되는 이유이다.

2. 생물학에 의해 마련될 수 있는 인문학의 새로운 고유한 정체성

점점 더 자신의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는, 그리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점점 더 완전한 것으로 입증해 나가는 이러한 현대 학문의 논리epistemology of modern science 앞에, 여전히 <자연의 객관성>과는 다른 또 하나의 원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저항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약 이 또 하나의 원칙- 즉 '생명의 원칙'과 같은 것 -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그리하여 그 실재성을 인정해야 한다면, 인문학은 자연 과학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신의 존립의의를 이 원칙에 기대어 세울 수 있으리라 : 이 원칙은 자연 과학이 추구할 수 있는 객관적 지식의 도달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⁶⁾ 이 경우 인문학은, 자연 과학을 자신 안에 포괄하는 과거의 위대

16) 따라서, 이 원칙이 작용하여 일어나는 현상은, 설령 그것이 생명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자연 과학으로서의) 생물학에 의해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 이 원칙이 작용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연 과학과는 다른 학문, 즉 인문학이 필요하다.

한 모습으로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자연 과학으로 환원되지는 않을 독립적인 학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세계의 진리를 자연 과학과 더불어 반분(半分)하는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원칙과 <자연의 객관성>의 원칙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 - 가령, 베르그손과 같은 사람이 주장하듯이, 이 또 하나의 원칙이야말로 본래적이고 일차적이며 primitive 적극적인 positive 것이며, <자연의 객관성>에 부합하는 원칙은 이 본래적인 원칙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지 이차적이고 secondary 부정적인 negative 것이라면 -, 인문학은 세계에 대해 자연 과학이 주는 객관적 지식보다 더 참된 지식을 줄 수 있는 더 우월한 학문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물학의 발전해 온 추이를 지켜볼 때, 이 또 하나의 원칙을 필요한 것으로 만들었던 많은 이유들이, <자연의 객관성>의 원칙에 따르는 설명에 의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것으로 점차 밝혀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⁷⁾ 이는, 이 또 하나의 원칙을 세우려 했던 것이 그것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 현상을 떠받치는 기계적 메커니즘에 대해 우리가 무지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무지가 개선될수록 이 또 하나의 원칙의 필요성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사려 깊고 공정한 정신인 양, 생명 현상의 모든 것이 물리-화학적 힘들의 기계론적인 상호 작용에 의해서 해명될 수 있다는 주장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 과학으로부터 자신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해 줄 수 있었던 이 또 하나의 원칙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인문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의의를 가지고 존립해 나갈 수 있을까? 과연 인문학은 이제 더 이상 인간에 대해, 생물학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만이 고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일까? 인문학의 모든 것은, 지식의 대통합을 위해, 생물학으로 - 혹은, 더 나아가, 물리학-화학으로 - 모조리 환원되어야 하는 것일까?

17) 에른스트 마이어, 앞의 책, pp. 34-44.

이 물음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흥미 있는 물음을 제기해보자. 잠시 뒤에 우리는 생물학은 결코 물리학-화학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생명 현상의 모든 것이 모조리 물리-화학적 힘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생물학 자신이 주장하는 바이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생물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화학으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지식의 대통합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세계가 하나인 이상,¹⁸⁾ 세계에 대한 지식도 하나일 것이다 ; 그러므로 여러 상이한 학문들로 나뉘어져 있는 지식들을 (하나의 원리와 방법에 의해)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은 일면 아주 온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많은 경우, 지식의 대통합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모든 것이 결국 물리-화학적 법칙에 의해서 온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 생명 현상의 모든 것마저 물리-화학적 힘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물리-화학적 존재자들이라는 것을 - 혹은 적어도 물리-화학적 존재자들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존재자들이라는 것을 -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다른 학문이 하던 모든 것이 물리학-화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리학-화학은 사건들 속에서 발견되는 불변적인 관계(법칙)들을 찾아내고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불변적인 관계들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즉 물리학-화학은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 즉 보편타당한 법칙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일회적이고 유일무이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일회적이고 유일무이한 것, 즉 반복되지 않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생겨나고 변화해 가는지를 탐구하는 ‘역사-서술적’인 방법은 물리학-화학에 속하지 않는다. 물리학-화학이 탐구하는 대상(법칙)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 즉 설령 시간이 거꾸로

18) 사실, 이게 정말 그런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세계가 하나’라는 말이 대체 무엇인가?, ‘세계가 다수’이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하지만, ‘세계가 다수’라는 말은 또 무엇인가?

흐른다 해도 상관없이 -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걸쳐 타당한 무시간적인 대상이다. 물리학-화학이 가진 이런 ‘법칙-정립적^{law-establishing}’ 학문의 성격은, 시간의 비가역적인 흐름이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역사-서술적’ 탐구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생물학은 - 특히, 진화생물학은 - 본질적으로 ‘역사-서술적’인 학문이다.¹⁹⁾ 왜 그럴까? 생명체의 진화를 유발하는 변화의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윈주의의 생각- 이제 생물학계에서 정설로 굳혀진 생각 -을 우리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생명체의 진화는, 유전자라는 미시적인 차원의 존재에서 일어나는 *우연적인* 변화로 인해 일어난다. 유전자가 겪는 변화는 정말로 *우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 즉 유전자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는 결코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유전자라는 미시적 차원의 물질적 존재는, 그 양자적 구조로 인해, 근본적인 불확실성에 -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의 원리 -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⁰⁾ 그러므로, 생명체의 거시적인 구조와 기능은 유전자에 담긴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이러한 근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명체의 거시적인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변화해갈지도 또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된다. 즉 생명체의 거시적인 구조와 기능의 변화, 즉 진화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예측불가능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 따라서 생명체가 어떤 식으로 진화해갈지를 어떤 법칙으로부터 예측가능하게 연역해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 즉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사태의 자체적인 논리로 인해 이러한 연역은 불가능한 것이다.

지식의 대통합을 주장한다는 것은, 아마도 세계의 모든 일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개의 물리-화학적 법칙들로부터 연역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일 게다. 하지만 생물학은 물리학-화학으로부터 제기되는 이런 주장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생물학의 이러한 저항은 결코 생명체가

19) 에른스트스 마이어는 생물학의 이러한 ‘역사-서술적’ 성격이 그것을 ‘법칙-정립적’인 물리학-화학으로부터 결정적으로 구분 짓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 에른스트스 마이어, *같은 책*, pp. 113-115.

20) Jacques Monod, *Ibid*, p. 150.

물리-화학적 법칙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 앞에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생물학의 발전은, 생명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또 하나의 원칙을 도입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의 모든 것이 온전히 물리-화학적 법칙들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진화와 같은 생명계의 일들은, 그것이 물리-화학적 법칙들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결코 아니면서도, 또한 결코 이 법칙들로부터 미리 예측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즉 이 법칙들에 의해 미리부터 그런 식으로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체의 진화와 같은 일은 저 기본적인 법칙들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들로부터 연역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다.²¹⁾ 이것이 바로, 생명체의 진화와 같은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법칙들로부터의 연역적인 설명’이 아니라 반복되지 않는 일회적이고 유일무이한 사건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났는가를 연대기적으로 -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 서술하는 ‘역사-서술적’인 학문을 필요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물리-화학적 법칙들을 모두 다 알아도 생명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다 알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계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이 물리-화학적 지식으로 환원될 수 없게 만드는 이유, 즉 지식의 대통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이와 같이, 생물학은 생명계의 모든 일이 순전히 물리-화학적 법칙들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계의 일들이 물리-화학적 법칙들로부터 미리 연역가능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일단 한 번 일어난 일은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물리-화학적 법칙에 따라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retrospective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다 -, 물리학-화학으로 환원되지 않을 자신의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인문학이 생물학이나 물리학-화학과 같은 자연 과학에 대해서 갖는 관계도 이와 같을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이 전적으로 물리-화학

21) Jacques Monod, *Ibid*, pp. 61-62.

적 법칙들과 생물학적 원리- 인간과 생명체의 진화를 주도해 온 ‘우연’과 ‘자연 선택’의 원리 -에 따라 이뤄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즉 인간이 이들 자연 법칙들을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자연 과학들에도 환원되지 않을 인문학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물학이 어떻게 해서 물리학-화학에도 환원되지 않는 고유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물리학적 지식 자신- 즉 물질의 미시적인 차원을 지배하는 ‘불확정성 원리’ -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지식은 인문학이 어떻게 해서 생물학에도 환원되지 않을 고유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생물학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독특성이 - 가장 발달된 고등동물과 비교해보아도 결코 건너뿔 수 없는 듯한 심연에 의해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이 - 단지 복잡하게 발달된 그의 뇌-신경체계 덕분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들의 뇌와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들을 식별하고 그 자극들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동의 메커니즘을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즉 뇌는, 인간에게서나 다른 동물들에게서나 똑같이, 외부 자극과 그에 대응하는 행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뭐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어떤 새로운 행동의 방식도 새롭게 구성해낼 수 있다 ; 인간은, 축구이건 야구이건 무용이건 또 그 어떤 몸놀림이건, 완성도 높은 몸의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의 방식들을 서로 연결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새롭게 조합해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이 모든 것은 인간 이외에는 가장 발달된 고등동물들에게마저도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이런 차이는, 생물학에 따르면, 인간의 뇌가 다른 동물들의 뇌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즉 생물학은 인간의 뇌와 다른 동물들의 뇌 사이에 있는 차이는, 복잡성의 정도degree 차이이지 그 둘을 전혀 판이한 성격의 것으로 만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인간의 뇌가 다른 동

물들의 뇌에 비해 복잡하다는 것은, 외부 자극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의 뇌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 메카니즘의 수(number)가 다른 동물들의 뇌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 메카니즘의 수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²²⁾ 그러므로 외부 자극에 연결될 수 있는 행동 메카니즘의 수가 제한적인 다른 동물들의 행동은 미리 정해져 있는 몇 가지 행동 방식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다 : 그들의 행동은 미리 정해져 있는 몇 가지 행동 방식에 따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며 기계적으로 일어날 뿐이다. 동물들이 주어진 그대로의 본능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automatic 행동할 뿐이지 결코 본능의 제한을 벗어나는 새로운 창조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복잡한 - 즉 외부 자극에 연결될 수 있는 행동 메카니즘의 수가 무수히 많은 - 인간의 뇌는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도 무수히 많은 다양한 행동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실제로 실현되는 한 가지 행동 방식의 주위를 그것 이외에도 가능했던 무수히 많은 다른 행동 방식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넓은 선택의 기회, 서로 경합하는 서로 다른 많은 행동 방식들 중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가능한 이들 수많은 행동 방식들을 바탕으로 최선의 행동을 위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동물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필연성과 자동성을 벗어나게 만든다 : 서로 경합하는 수많은 행동 방식들은 그들 각자가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서로 상쇄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이 자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막게 되고, 이로 인해 동물들을 지배하는 무의식적 자동성을 넘어서는 의식과 자유가 깨어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을 동물로부터 구별지우는 그의 저 놀라운 능력은 그의 뇌의 복잡성이 가져다 준 이러한 자유와 의식 덕분인 것이다.²³⁾

22) 즉 결코 수(양)의 차이이지 질의 차이가 아니다.

23) 이상의 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베르그손의 『창조적 진화』, *Evres*, pp. 716-720를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앞에서 베르그손을 <자연의 객관성>의 원칙과는 다른, 생명체에게만 독특하게 적용되는 또 하나의 원칙을 요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현대 생물학의 발전은 이러한 베르그손의 생기론적 vitaliste 입장이 더 이상 지지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

생물학은 이처럼 어떻게 해서 인간이 자연의 다른 존재자들과는 달리 자유로울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 생물학의 발전이 아니었다면, 인간은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을망정 결코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바탕으로 창조해낸 것들이 자연이 만들어낸 것들만큼이나 튼튼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그것들이 인간의 삶이나 자연의 다른 존재자들의 삶에 커다란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이 이처럼 자연 자체가 만들어낸 것만큼이나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모든 존재자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그의 언어 사용 능력 덕분이다 : 언어는 개인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든다 ; 따라서 어느 한 개인이 체득하고 익히게 된 것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이로써 다음 세대로 계속 전승될 수 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언어의 덕분으로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축적되어 끊임없이 더 크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⁴⁾ 문화란 - 자연의 다른 존재자들의 존재방식과는 전혀 다

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처럼 베르그손의 생기론적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를 두려한 반면,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뇌-신경체계의 복잡성이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자연이 정하는 그대로의 삶이 아닌 자연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을 의식적으로 창조해내는 문화적 삶을 살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베르그손의 설명을 끌어들이 우리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한 번은 베르그손을 비판하고 또 한 번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견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이러한 태도는 실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인간의 복잡한 뇌-신경체계가 어떻게 인간에게서 자유로운 의식이 깨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지에 대한 베르그손의 설명은 그의 생기론적 입장과 분리되어 평가받을 수 있고, 그리하여 현대 생물학의 이해와도 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르그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논리적인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지적해주신 심사위원께는 감사드린다. 그의 지적 덕분에 우리는 그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주석을 달게 되었다. 이 심사위원께서는 그 밖에도 이 논문의 부족함에 대한 여러 가지 날카로운 논평을 보내주셨다. 그의 지적은 모두 타당한 것이다.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른 인간의 이 독특한 존재방식은 - 이처럼 언어에 의해 가능해진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 인간은 전승되어 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갖가지 기술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며, 이러한 기술과 제도는 또한 언어에 의해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 인간의 삶에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이러한 기술과 제도의 총체가 바로 문화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이제 인간은, 이제까지 인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의 발전을 이끌어 온 자연의 저 거대한 원리- 자연 선택의 원리 -로부터도 마침내 독립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인다 : 가령, 문화적 삶에 의해 싹트고 자라난 인간의 윤리 의식은, 생존에 유리하지 못한 조건을 타고난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처럼 그대로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적 삶은 이제까지 생명계 전체를 지배해 온 자연 선택의 원리보다 더 큰 힘으로서 인간의 삶에 - 또한 인간의 삶과 교섭하는 자연의 다른 존재자들의 삶에 -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인간은 자연의 힘보다 더 한층 강력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물학은 인간이 결코 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자연 전체의 목적도 존재 전체의 비의(秘意)를 개시(開示)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자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인문학은 과거의 위대했던 인문학이 가졌던 목표와 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생물학이 제시하는 성과들을 무시하지 않는 한, 인간의 존재에게서 어떤 거대한 우주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 24) 그러므로 언어 사용 능력이야말로 현생 인류를 그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생명종들- 여기에는 현생 인류의 조상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멸종되어 버린 원시 인류도 포함된다-과의 생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든 ‘자연 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가령, 한 사람의 인간은 결코 맘모스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여러 명이 작전을 짜서 합동 공격을 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 그리고 작전을 모의하거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합동 공격은 오직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언어 사용 능력을 가졌던 현생 인류의 조상이 그렇지 못했던 원시 인류와의 생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것은 한낱 자기기만이거나 텅없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문학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고 모든 것은 물리학-화학이나 생물학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닐 것이다. 생물학은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 혹은 적어도, 인간이 동물과는 달리 즉물적이고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성적이고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생물학은 인간의 자유와 문화 창조 능력의 생물학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준다 : 생물학은 인간의 뇌 구조가 어떻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자유롭게 행동하고 의식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게 하는지를 밝혀주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이러한 자유와 문화 창조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생물학은 아무런 말도 해주지 못 한다 ; 생물학이 이런 말을 하려 들면, 그는 *학문*으로서의 자신이 서 있는 원칙, 즉 <자연의 객관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문*으로서의 생물학은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며, 이런 *객관적* 지식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자연의 객관성>의 원칙을 따를 때에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의 객관성>의 원칙은, 자연 자체는 순전히 객관적인 것이라는 것을, 즉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와 같은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가치에 관한 문제는 *객관적* 지식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선다 : 생물학은 그러므로,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 하는 한, 이러한 가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물학이 이처럼 침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인문학이 고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는 곳일 게다.

인간을 인간이도록 만드는 것, 즉 인간을 다른 동물들로부터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진 이러한 자유와 문화 창조의 능력일 것이다. 그러므로 인문학의 과제는 아마도 인간이 가진 이러한

자유와 문화 창조의 능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고 더욱 크고 풍요롭게 꽃필 수 있게 하는 것일 게다 ; 그의 자유와 문화 창조의 능력이 지켜지고 더욱 발달하는 한에서만,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 즉 자연의 다른 존재자들과는 달리 자연의 힘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고유한 존재가 -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문학은, 인간의 이러한 자유와 문화 창조의 능력을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지식도 발견하지는 못할 것이다 : 과거의 인문학이 믿었던, 인간이 자신의 삶을 그것에 맞도록 이끌어가야 할 어떤 초월적 원리나 우주적인 목적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자연의 객관성>에 의존하는 자연과학의 객관적 지식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하지만, 사정이 이러하므로 어떤 초월적 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삶은 이러한 원리가 정해주는 데 따라 살아야지만 비로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참된 이해 대신에 거짓된 이데올로기계의 복종을 인간의 정신에게 강요하는 일이 되는 반면, 그렇다고, 이러한 초월적 원리가 없다고 해서, 즉 인간의 자유와 문화 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 능력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탐구를 무가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 이것이 바로 인문학의 고유한 가치를 부정하는 태도, 즉 인문학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물리학-화학 그리고 생물학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태도일 것이다 - 인간을 인간이도록 만드는 능력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인간을 다시 동물의 차원으로 -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힘이 전적으로 규정하는 데 따라 사는 존재로 - 되돌려 놓으려는 일이 될 것이다. 인간의 자유와 문화 창조 능력을 더욱 풍요롭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인문학의 탐구는, 그러므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인문학의 탐구는 오히려 인간의 자유와 문화 창조 능

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를 실험해보는 것, 즉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없는 창조적인 실험에 가까울 것이다 : 인문학의 탐구는, 미리 정해져 있는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자율적이고 내재적으로 창조해내는 데 있을 것이다. 아마도 문학을 비롯한 예술의 창조적인 활동을 인문학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참고문헌

- 에른스트 마이어, 『이것이 생물학이다』, 최재천 외 옮김, 몸과 마음, 2002.
- 앵겔스 (프리드리히), 『자연변증법』, 윤형식, 한승완, 이재영 (공)옮김, 중원문화, 2007
- 헤겔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자연 철학 : 철학적 학문의 백과사전
강요』, 박병기 옮김, 나남출판, 2008
- 히로시게 토오루 등, 『사상사 속의 과학』, 남도현 옮김, 다우, 2003.
- Bergson (Henri), *Œuvres*, 1959
- Miquel (Paul-Antoine), “Une Harmonie en arrière” in *Annales Bergsoniennes* IV, PUF, 2007.
- _____, *Bergson ou L’Imagination métaphysique*, Édition KIMÉ, 2007.
- Monod (Jacques), *Le hasard et la nécessité*, Éditions du Seuil, Paris, 1970,

원고 접수일: 2009년 2월 28일

심사 완료일: 2009년 5월 6일

게재 확정일: 2009년 5월 28일

ABSTRACT

Ce qu'implique le développement de la biologie pour la science humaine

Jo, Hyun Soo

La science humaine se pose principalement, croyons-nous, d'éclairer la <nature humaine>. Elle pouvait, pendant longtemps, jouir de son statut indépendant à l'égard de la science naturelle, puisque la nature humaine paraissait tellement différente de celle des autres êtres du monde qu'il paraissait qu'il faudrait employer, pour la saisir adéquatement, une logique de recherche autre que celle de la science naturelle.

Mais, la science moderne, au fur et à mesure de son développement, menace de plus en plus cette indépendance de la science humaine à l'égard de la science naturelle. La science moderne se fonde sur le postulat de l'objectivité de la Nature. Elle est née au moment où Descartes et Galilée établissaient le principe d'inertie, qui implique le refus systématique de considérer comme pouvant conduire à une connaissance <vraie> toute interprétation des phénomènes donnée en termes de causes finales, c'est-à-dire de <projet> : la Nature est, selon ce principe, seulement <objective>, non pas <projective>. Ainsi, ce principe ne fondait pas seulement la mécanique, mais l'épistémologie de la science moderne : on pose le postulat de l'objectivité de la Nature comme condition nécessaire de toute vérité

dans la connaissance. La connaissance <vraie>, c'est-à-dire objective, est celle qui s'obtient en admettant que le postulat de l'objectivité de la Nature est la seule source de la vérité, alors que la connaissance qui fait appel à une certaine cause finale n'est qu'une interprétation purement subjective, c'est-à-dire <anthropomorphique>, du monde. Or il semble que la biologie moderne, tout en restant fidèle à cette épistémologie de la science moderne, c'est-à-dire en n'employant qu'une méthode d'explication mécanistique, réussit à expliquer les phénomènes vitaux qui, pendant longtemps, même jusqu'à presque 200 ans plus tard après la formulation explicite par Descartes et Galilée du principe de l'inertie, étaient censés transcender l'explication mécanistique, qui semblaient ainsi demander, pour être appréhendés adéquatement, une autre manière d'explication, différente de celle qui s'appuie sur le postulat de l'objectivité de la Nature. A parler brièvement, le développement de la biologie moderne lui fait maintenir que l'explication mécanistique, qui est seule à être compatible avec l'objectivité de la Nature, peut s'étendre aux phénomènes vitaux, y compris la nature humaine.

C'est peut-être ainsi qu'on vient à l'idée d'Unification du Savoir, idée qui, dans la plupart des cas, prétend assimiler la science humaine à la science naturelle, en refusant de lui admettre aucune rôle indépendant : on entend souvent cette idée parler que si l'on arrive à avoir toutes les connaissances physiques et chimiques et biologique, la science humaine n'aurait plus rien à proprement dire. Nous voulons, dans cet écrit, montrer pourquoi cette idée d'Unification du Savoir est inacceptable, et pourquoi et comment la science humaine peut entretenir son indépendance malgré le brillant développement récent de la science naturelle.